

사조별로 본 영화 1백년 <1> 사실주의

살아있는 영상표현에

투영된 삶

허창
(영화평론가)

1895년 12월 28일에 프랑스 루미에르 형제가 피리 그랑 카미에에서 영화회 공개상영한 이래로 올해가 1백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신문에서는 영화의 이해를 돕고자 '사조별로 본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기획을 통하여 영화의 역사 및 그 시대의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1. 리얼리즘

영화에 있어서 사실성은 영화의 태생적 특성과 합수 있다.

영화를 실감나게 하는 카메라의 눈은 현실의 움직임을 단편으로 엮어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영화의 태생적 특성과 합수하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1백년 전 루미에르가 찍은 '공장의 출구', '기차의 도착' 두 실사영화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한 사건(1895년 12월 28일)을 영화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레 벨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와 농민을 안겨 준 루미에르의 실사영화는 얼마 안가 대중에게 환영을 얻어내지 못했다. 단순한 현실 재현의 영상사조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루미에르가 등장한 사람이 '트릭 촬영'의 발명가, '현실의 재현'으로 불리는 폴 드레에스이다.

그는 단순한 실사영화를 세로로 촬영, 이중노출, 미니어처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영화 표현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그의 대표작 '달걀의 여행' (1902)은 이러한 기술적 노력에 의해 초현실적 현실의 세계, 꿈의 양상을 창출한 최초의 극영화이다. 무엇보다 그의 위대한 공적은 영화에서 무관심한 관객(觀衆)의 발견과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창출한 사실에 있다. 이후 영화는 내러티브를 기초로 하는 픽션의 세계로 치닫해 갔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르러 영화가 태생적 특성을 저버리고 픽션을 숭배하며 상업주의에 영합하고 있는 현상에 반발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 선구적 역할을 지향한 것이 영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운동이다. 이 다큐멘터리운동은 1925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20년간에 걸친 다큐멘터리가 존 클리어는 폴 로우와 제임스 뉴슨에 의해 의욕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들은 단지 영화를 상품으로서의 극영화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문제와 계층을 사회학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영화의 본능적 기능을 발견하려 했다. 말하자면 상업주의에 절제당하며 오염된 영화를 해방시켜 영화 본래의 리얼리티를 회복하는 길을 다큐멘터리의 방법론으로 추구하는 영화운동이었다.

사상성과 논리적 획득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홍콩 다큐멘터리"는 드라마가 있고 뛰어난 드라마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본다는 명제는 다큐멘터리 방법론

자전적 도둑
The Bicycle Thief
(이탈리아, 1948)

인간문제 탐구가 궁극적 영상이념 숨어있는 진실 찾는 카메라의 눈

이 오늘날에 이르러 창조적으로 결실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영화에서의 리얼리티가 비로소 확고한 표현양식으로 자리를 굳히며 사상성과 논리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인간 사회주의 혁명과 성공한 소련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리얼리티영화와 같은 사회적 리얼리티의 불씨는 이점향의 영화는 에이전트인, 포두 등에게 의해 주도되었다. 그것은 예술의 형식을 혁신하는 것이 곧 사회혁명과 변혁에 공헌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영웅보다는 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민중드라마를 만들었다. 다만 다큐멘터리 운동이 사

실의 충실한 기록으로서 드라마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리얼리즘은 주어진 드라마를 사실화시키는 강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점이 다르다 하겠다. 에이전트인인 주동한 사회주의리얼리즘이 1930년대에 이르러 소련 내부에서 형식주의는 이념으로 비판받고 제2차 세계대전을 강요당한 것은 리얼리즘 변천사에 특징할 만한 일이다.



들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리얼리즘이라고 한양의 의미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무방비도시'는 나치군인 파시스트와 싸우는 저항운동자의 이야기인데 종전의 드라마에서 보는 갈등구조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 즉 카메라의 시선은 시종일관 패시스트가 권에 대항하는 저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한 생생한 상황 묘사와 함께 상황에 대

응한 리얼리즘은 서서히 획득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무방비도시와 테 시가의 작품 경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네오 리얼리즘의 후계자로 지목된 페데리코 펠리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등은 독자적인 영상세계에 빠져들어 흐름의 단절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네오 리얼리즘의 정신과 방법론은 전후세대의 영화 제작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소극적이게는 되었다.

그럼 그리듯이 평이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비롯되고 내 시가 '자전적 도둑'(1948)이다. 간신히 얻은 직장을 쫓겨난 사나이의 그의 아들들이 독박으로 자전차를 찾아 모와 지리를 방황한다는 대사를 지 않은 이야기가 못지 않게 박진 감동과 충격을 안겨준다.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생활 현실이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하층민 실상이 바로 리얼리즘적으로 다가가려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런 해석이나 개념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절박한 삶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세밀히 관찰하는 카메라의 다정다감한 시선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네오 리얼리즘은 관념이나 언어가 놓이지나 속일지 못하는 현실이 빛나는 비근한 사실들을 카메라의 정직한 눈으로 드러내 보여 준 영상적 진실이었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과 불안이 처음 질서를 회복하면서 네오 리얼리즘은 서서히 획득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무방비도시와 테 시가의 작품 경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네오 리얼리즘의 후계자로 지목된 페데리코 펠리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등은 독자적인 영상세계에 빠져들어 흐름의 단절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네오 리얼리즘의 정신과 방법론은 전후세대의 영화 제작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소극적이게는 되었다.

인간의 의식 묘사

1950년대 말, 해석처럼 등장한 프랑스 누벨로 영화에는 문명적 네오 리얼리즘의 흔적이 엿보인다. 스트리나 드라마와 직접 현실과 카메라가 부딪히는 행위를 중시하며 다양한 영상과 현존의 영화를 가발짓고 드라마의 테두리에서 탈출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속에서 드라마를 발견하고 현실에서 속박된 의식을 영상이 위해 전락하는 누벨로와 네오 리얼리즘의 방법론이 이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네오 리얼리즘의 방법론은 네오 리얼리즘의 방법론이 이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 영화 리얼리즘은 형식과 방법론에서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리얼리즘의 방법론은 네오 리얼리즘의 방법론이 이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 갖춘 '지식의 보고'

도서관은 학문 탐구의 기초가 되는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역사 속에서 인류가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학문적 성향과, 업적이 가득한 '지식의 보고'이다. 이번 도서관관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중앙도서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도서관 사용이 활발하고, 신기술들이 신변들의 도움을 받아 이용을 익힐 수 있게 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중심지로 설립되고 있다. 다음은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이용 습관에 대한 설명이다.

컴퓨터시스템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학과 공부와 레

학이란 학문 도서관을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학과 공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학과 공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학과 공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코넷-인터넷 통한 도서관

시청각실·24시간 열람실 설치

포트케를, 혹은 기타의 이유 등으로 도서관을 열람하거나 대출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는 중앙도서관 지하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가야 한다. 현재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시청각실은 약 25만권 정도,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 서가를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짐작 없이 찾는 것이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포항공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13개 대학과 더불어 공동체립한 KUNET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도서관의 도서관목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그리고 그 대학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서가를 직접, 도서관에서 대출한 후 해당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도 없다던 INTERNET에 접속하여 외국 대학도서관의 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다.

타 대학 도서관에서도 원하는 책이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인 신장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신청한 도서관을 구할 때까지 추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신청한 도서관을 구할 때까지 추궁하지 않는다.

한편에는 사서과를 통한 학술정보서비스에 있는 해와 자료와 최신 학술정보를 비치해 놓았다. 그중의 책은 대출할 수 없고 열람만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사서과를 통한 학술정보서비스에 있는 해와 자료와 최신 학술정보를 비치해 놓았다. 그중의 책은 대출할 수 없고 열람만 가능하다.'

시청각실·24시간 열람실 설치

시청각실 및 휴게시설 지하 1층에는 학생들의 음악감상과 시청각교육을 위한 20석 규모의 AV(Audio/Video)실이 설치되어 있다. 개방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시청각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서관에는 많은 열람실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다 열람실 예정이다.

수원중앙도서관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타 대학 도서관에 비해 더 나은 시설이 있다. 그러한 훌륭한 시설은 이용하기 위해 보다 풍성한 대가 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서관에 또 이러한 수석이 붙는다는 것은 진지한 생각과 계획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신청한 도서관을 구할 때까지 추궁하지 않는다.

그외에 중앙도서관 1층 헌



4월15일부터 중앙일보가 아침에 배달됩니다.

요말일 배선신로입니다. 필요한 자재와 재료 조달, 화요일엔 뉴미디어센터와 문화 센터 요말일 배선신로입니다. 필요한 자재와 재료 조달, 화요일엔 뉴미디어센터와 문화 센터 요말일 배선신로입니다. 필요한 자재와 재료 조달, 화요일엔 뉴미디어센터와 문화 센터

